

## 사재기 후유증 멀쩡한 음식 내다버려



코로나19로 공황에 빠져 사재기 광풍으로 속 끓던 영국이 이제는 멀쩡한 음식을 내다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30일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최근 영국에서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멀쩡한 음식 꾸러미 여러 개가 발견됐다. 이제 막 유통기한이 지난 파스타부터 포장도 뜯지 않은 닭고기, 푸른색이 가지지도 않은 바나나 송이까지 쓰레기통을 한가득 채울 만큼 많은 양이었다.

더비셔주 더비의 한 주민은 “공황에 빠져진 열대를 싸늘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다. 벌금을 물려야 한다.”며 분노했다.

사재기한 식량을 다 먹지 못하고 내다 버리는 사람들이 늘자 몇몇 SNS 이용자들은 “왜 멀쩡한 음식을 내다 버리느냐?”, “도대체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무분별한 사재기를 질타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영국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사재기가 계속됐다. 대형마트는 생필품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전쟁터를 방불케 했고, 매대는 채워지기 무섭게 텅텅 비었다. 영국의 한 간호사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교대근무를 마치고 마트에 들렀지만 아무것도 살 수 없었다며 사재기를 멈춰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영국 정부도 식료품 부족 사태는 절대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주문하고 나섰다. 또 BBC 등 주요 언론은 사재기가 없는 한국과 비교하기도 했다.

## 휴관한 미술관에서 반 고흐 작품 도난



▲ 도난당한 고흐의 1884년작 '뉘넨 목사관 정원의 봄'. 우측은 빈센트 반 고흐의 자화상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휴관 중이던 네덜란드의 미술관에서 인상파의 거장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한 점이 도난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암스테르담 동부 싱어 라런 미술관은 지난 30일, 이날 새벽 고흐의 1884년작 '뉘넨 목사관 정원의 봄' (Parsonage Garden at Neunen in Spring)을 도둑맞았다고 밝혔다. 이 작품은 최고 600만 유로(약 660만 달러) 상당의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도난 시점은 공개롭게 고흐의 생일이었다.

박물관과 경찰에 따르면 도둑들은 이날 오전 3시 15분 쯤 미술관의 유리문을 부수고 침입해 이 작품을 훔쳐갔다.

경찰이 경보기 작동을 확인하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범인은 이미 도주한 뒤였다. 경찰은 범인들이 미술관에 침입해 곧장 이 그림으로 간 것으로 보아 해당 작품을 처음부터 노리고 있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휴관 중이던 시기를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네덜란드의 미술관은 지난 13일 이후 모두 휴관 중이었고 싱어 라런은 오는 6월까지 휴관 중이었다. '뉘넨 목사관 정원의 봄'은 오는 5월까지 예정됐던 기획 전시를 위해 네덜란드 북부 흐로닝언에 있는 흐로닝어르 미술관에서 대여한 것이었다.

미술관 측은 “이 작품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전시돼 있었다.”며 “이번 도난 사건에 충격을 받았고 분노한다.”고 밝혔다.

'뉘넨 목사관 정원의 봄'은 교회 탑을 배경으로 나무에 둘러싸인 정원에서 한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고흐가 네덜란드 시골에 가족과 함께 머물면서 본 것들을 그렸던 때의 작품으로, 그의 걸작 중 하나인 '감자 먹는 사람들'도 이 시기에 나왔다.

## 인적 사라진 자리에 야생동물 활보

코로나19 사태로 인적을 찾기 어려워진 영국 북웨일스의 유명 휴양지 란드드노가 야생 염소떼 차지가 됐다.



지난 31일 AP통신에 따르면 마을을 헤집고 다니던 염소떼는 22년간 이 마을에 산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며칠 전 마을에 모습을 드러낸 염소 무리는 인적 없는 거리를 활보하다 주택 정원을 점령하고 풀을 뜯는 등 여유를 부렸으며 성당 내 묘지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다. 경찰은 염소가 출몰한 마을 어귀로 출동했으나 염소떼의 침입을 막을 방법은 없었다고 전했다.

웨일즈 콘위시의회 역시 비슷한 답변을 내놨다. 콘위시

의회 대변인은 ITV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때때면 풀을 뜯으려는 염소들이 마을로 내려오곤 하지만 이번에는 주택까지 멀리 퍼졌다. 달리 막을 도리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역에 약 200마리의 야생 염소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 확산으로 각국이 외출금지령을 발동한 가운데, 사람의 발길이 끊긴 멕시코의 칸쿤 남쪽 리비에라 마야 관광지역에서는 리조트 발코니를 어슬렁거리는 거대

악어가 포착되기도 했다. 또 톨룰 지역에 위치한 다른 리조트에는 평소 보기 드문 맹수 재규어도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사람들이 떠난 자리를 야생동물이 채우고 있는 셈이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Allstate**  
You're in good hands.

##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산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